

지금 여기서 '열반' 실현하라

희망을 잃지 마라

스님에게는 일평생 배움을 주신 박한영 스님, 지암 스님, 서운 스님 세 분의 스승이 계신다. 근대의 대선지식이었던 그 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어본 일이 없으며, 해남 대흥사에 세 분의 부도탑을 세웠다.

“박한영 스님에게서는 부처님의 파산한 자비심이 무엇인지 배웠고, 지암 스님에게서는 이판과 사판을 다 배웠어요. 지암 스님은 종로구에 조계사를 건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총무원 중심체제로 종현종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포교당 건립과 유치원 건립 등 불교의 현대화에 노력하셨어요. 저는 지암 스님으로부터 무(無)자 화두를 받아 참선수행을 하게 됐으며, 포교에 뛰어든 것은 은사님께서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뜻을 신도들에게 실천하고 너희들 스스로 모범을 보여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유혹 때문이지요.”

도솔암에서 대교과를 비롯해 내전과 외전을 두루 공부했다. 선암사에서 강사로 외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곳에서 9년 남짓 강사생활을 하다가 선방으로 돌면서 참선을 했다. 조계산 토굴, 도갑사, 대흥사, 선운사 선원을 전전하며 10여 년간 참선을 했다. 목에 묵언패를 걸고 몇 년 동안 묵언정진을 한 것이다. 천운 스님의 이런 치열한 정진이 오늘날의 스님을 있게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암 스님은 일제치하의 실형한 상황에서 걸으려는 친일 하는 척했지만 실은 독립자금을 많이 대신 분입했다.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임시정부 수송사령관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조국도 임시정부의 요원이거나 독립운동가라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이 이를 오해해 친일 승려로 매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차별 없는 참사람”의 세계를 구현하신 서운 스님은 “승려는 부처님의 계율에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하며, 증득한 깨달음이 있다면 중생들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다. 지계사상이 투철했던 서운 스님은 지계정신을 계승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천운 스님께 전법계(傳法畵)를 내렸다. 전법계 중 일부인 다음의 송(誦)은 천운 스님 일생의 수행승이 됐다.



벽해심저니유구(碧海深底泥牛吼)
홍염경중목마시(紅焰中木馬嘶)
푸른 바다 깊은 밑바닥에서 진흙소가 울부짖고,
붉은 불빛이 환히 밝은 가운데 목마가 호느껴 우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화부치는 것, 약으로 먹는 것은 모르지만 고기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승려가 아니지요. 상좌들에게 그런 짓 하면 나와의 인연은 끊어진다 그래요. 계(戒)는 흔히 그릇에 비유되잖아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계행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안정을 속히 얻어 해가 밝아져요. 그릇이 온전해야 물이 차고, 물이 맑아야 담을 볼 수 있지요.”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금강경> 한 구절을 일러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선법(善法)을 행함으로써 철저히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선법이란 수행하는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선법이 우리들 일상의 생활에도 반영돼야 진정한 선법이라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

희망을 낼 수 있는 언행을 실천하는 것이 선법이며,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선법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선법이라 설했지만, 그것은 이름이 선법일 뿐’이라 했어요. 범부들은 조그만 선행을 하고서도 내가 지금 선(善)을 행하고 있다는 아상을 잔뜩 갖게 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와서 그런 아상을 부리면 안 되지요.”

선을 행하되 아상을 사로잡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스님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이타심(利他心)이라 했다. 남을 위한 이타행을 통해서만 자신의 교만심과 아집을 떨쳐낼 수 있다.

매일 아침에 단 몇 분간만이라도 앉아 호흡을 세면서 명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자신을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확립시키는 일이 된단다. 이 천지간에 눈을 감고 들숨날숨을 반복해오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다보니 호흡하는 주체를 잊어버린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 좌복 위에 앉아 불일이다. 이 넓은 우주에서 한 숨 들이 쉬고 내 쉬는 이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끄달릴 것이 무엇 하나 있겠는가? 그대로가 날마다 좋은 날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천운 스님은...

1947년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8년 선운사에서 지암 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60년 선운사 도솔암에서 대교과 수료. 그 후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수선안거. 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수상.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원장이며, 대흥사 조실이다. 광주 향림사에 주석. 저서로는 <금강반아바라밀경> <지해와 큰 사랑을 그대에게> <섬없는 보살행> 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1. 한국의 용수보살 고익진 교수

배는 불속 나오고 작은 키에 몸은 까장까장 하신 양반이 학교 정문만 올라서면, “아이구 습차” 하고 한참 섰다가 걸었다.

고익진(1934~1988) 교수는 1934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의과에 진학했으나 병을 얻어 10년간 병상생활을 했다. 병원에서 치료받기의 판정을 받고 산사에서 요양하던 중 <반야심경>을 3년간 연구하고 눈이 열려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31세에 학교에 들어 왔으니 때가 많이 늦은 것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남다른 연구 성과를 보여 1980년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동국대학교 출판부 일을 볼 때는 ‘한국불교전서’ 편찬을 맡아 불후

자비구 뿐이다’ 하고 핀잔을 주고 가지 않는가!”

당신의 <아함법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삼법인설에 대한 비판> 같은 논문이 나오면 모임 자체가 학술논문발표회가 된다. 나라가 불안할 때는 “불교사상이



소 이렇게 해명하곤 했다. “나는 내 불교를 고집하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 불교에 우리 지역에 맞는 불교를 하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신라나 고려 때 불교를 지금 와서 그 언어와 행습으로 강요하면 누가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원시근본불교를 바탕으로 신라 원효불교를 양 옆으로 하여 이 시대에 알맞은 통불교·실천윤리를 강조한 것이 고익진 불교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사실 나는 전생부터 병이 없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호를 병고(丙古)라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학자 노릇 그만 하고 고향에 돌아와 조용히 요양할 것을 바랐지만, “한번 받은 몸은

“한국불교 걸사정신 부족” 지적... ‘고익진 불교’ 별명 얻어

의 명자를 남기기도 했다.

우리와의 인연은 ‘두토회’에서 이뤄졌다. 불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만나 모임을 가졌는데, 둘째 토요일에 모이기 때문에 ‘두토회’라 한 것이다. 지금도 이회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모임이면 그 동안 안부를 묻고,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불교계 사건들을 진맥(診脈)하고, 또 여기 알맞은 처방을 생각해 본다. 그러나 고 교수는 늘 말한다.

“한국불교는 천만년 이야기 해보았자 논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원시근본불교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걸사정신(乞士精神)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錢)과 사랑(情)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함경> 법상에 보라, 7가지 하지 않고 오후 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비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그러나 남방불교 스님들이 와서 보고 ‘한국에는 명

신라 삼국통일에 미친 영향” <종교간의 대립과 불교적 관용>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잘못하면 한국은 종교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극렬한 논설을 펴기도 했다.

특히 말년에는 원효 대사에 관한 논문을 많이 썼다. <기신론 별기> <진속(眞俗) 무애관> <실천윤리> 등은 모두 원효 대사에 대한 연구이고, 박사학위논문은 <한국고대불교사상사>이다. <원효의 백연결사>와 <서명유식의 기본입장>을 발표할 때는 한국 불교에 대한 차별의식이 뚜렷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캘리어, 산스크리트, 한문, 일어, 영어 등 5~6개 국어에 정통해 논리적으로 파지고 드는 데는 누구도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때는 ‘고익진 불교’라는 별명까지 생겼으나, 평

언젠가는 가고 맙니다.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그만입니다”하고 기필코 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시간이 갈수록 넓고, 넓고, 깊어져 그 논문을 읽는 사람까지도 삼매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꼭 웃으면서, 늘 이렇게 강조하곤 하셨다.

“그럴 수가 있겠다. 더 좀 깊고 넓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논리가 나온 거야. 한국불교는 이제부터 새로워져야 하니, 자네들은 여러 말 말고 10년 공부에 수십년 공부(又十年工夫) 해야 돼.”

그래서 그의 문학생 가운데 전 재생 같은 분이 나와 빠알리어 결정을 새롭게 번역해 아함법상의 논리를 시대에 맞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공부와 학문을 들로 보지 않고 평생 한 길로 꾸준히 매진해 후학에게 모범을 보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國立 이화학연구소
日本 두뇌집단 최우수 걸작품

79년의 연구역사
23개국 국제발명특허

유산균생산물질 "세이겐"은
불교경전에서 유래

불교에서는 종종 "제호를 맛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반열반경"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제호"는 맛이 최고로다,
이를 취하는 자는 만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모든약의 효험이 이 속에 함께 있도록다는 뜻이 됩니다.

주문 · 문의전화 02)3448-9100, 070-7410-2007 (주)세이겐코리아

계좌안내/국민: 853801-04-045718

유·산·균·혁·명!

면역력 선물시대

"세이겐"



세이겐골드
₩198,000(90포/BOX)

자세한 임상 발표 동영상과 보고서는
www.seigen.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임상실험 결과가 원천기술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로·무력감으로 오는 식욕부진호전 100%

2500년전 불교경전 "대반열반경" 원문 "세이겐"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제호는 최상의 것으로 이것을 음용하면,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다른 약은 일체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락

↓

생소

↓

숙소

↓

제호

乳より酪を出し、酪より生酥を出し、生酥より熟酥を出し、熟酥より醍醐を出す。醍醐は最上なり。若服する者有らば衆病皆除く。

大般涅槃經第十三より

유산균생산물질로 암, 난치병을 극복한 체험담 2,3,4권

